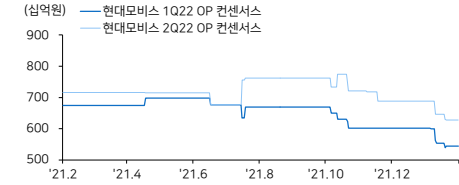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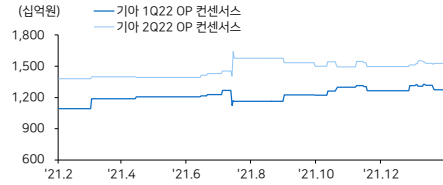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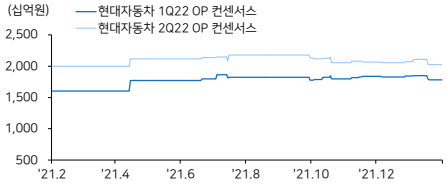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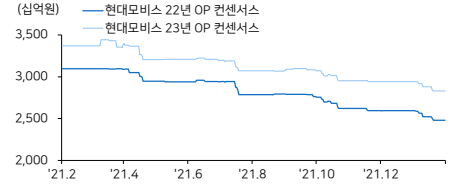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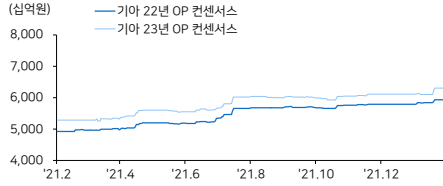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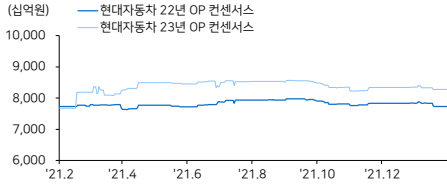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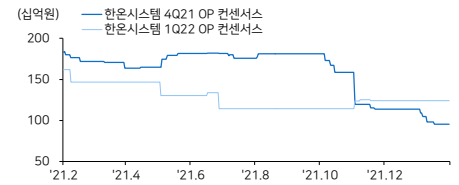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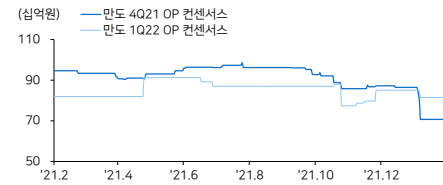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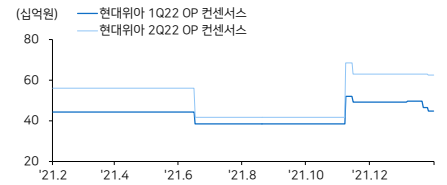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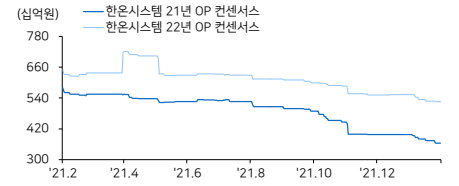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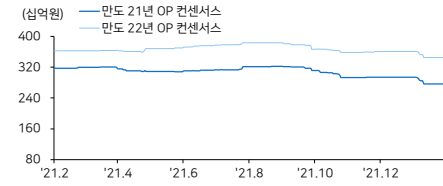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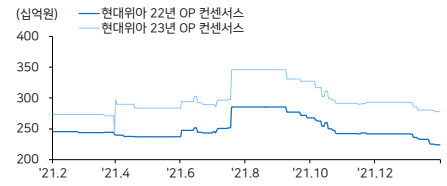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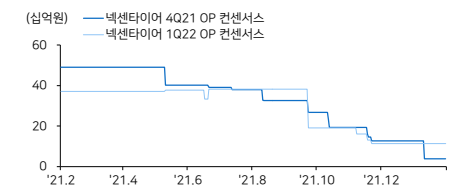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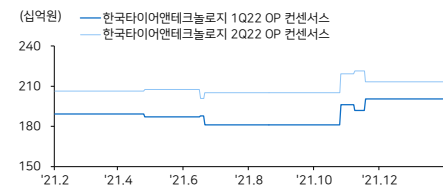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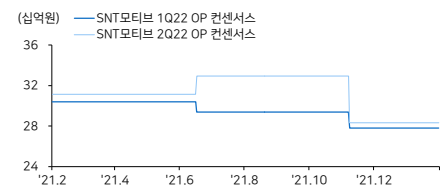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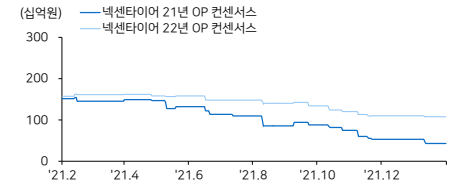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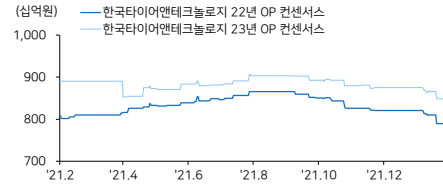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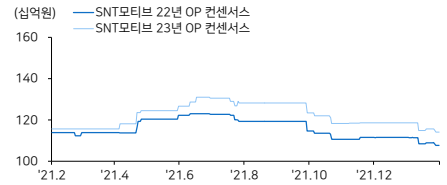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최대원도 광광모드...재계총수는 지금 'AI 디러닝' 중 (뉴스웨이)

삼성, SK, LG, 현대차 등 국내 4대 그룹이 일제히 AI 사업 확장 중.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텔레콤에 합류해 AI 사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이후 LG그룹 회장인 이계우도 AI 사업을 최근 파트너사와 생태계 확장 중. <https://bit.ly/3v5KA3z>

인텔 자회사 모바일이, 최첨단 자율주행 로봇택시 개발 (News Vision)

인텔 모바일이인 레벨4 자율주행 SoC(System on Chip) 'EyeQ Ultra'를 만들어 비용을 절감하는 차량 제작을 추진 중. 해당 칩은 5나노 공정 기술로 제조될 예정이며 2H23 프로토타입, '25년 상용화 버전을 STMicro에서 생산할 예정. <https://bit.ly/3t1nAjj>

VW could issue common, preference shares in possible Porsche AG IPO (Reuters)

VW가 31% 지분을 보유한 포르쉐AG 상장 논의가 이어지는 중. 보통주와 우선주 비율을 동일하게 하고, 특별배당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됨. VW의 현재 시가총액은 1160억 유로, 포르쉐AG의 예상시가총액은 최대 900억 유로. <https://reut.rs/3Hb1xvN>

BYD blade battery to enter India in partnership with Toyota (Pandaily)

토요타와 마루티 스즈키가 협력해 BYD의 블레이드 배터리를 탑재하고 인도 전기차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BYD의 FinDreams Battery는 인도 시장 관련 인력을 모집 중인 것으로 파악됨. <https://bit.ly/3hakRry>

중국 로컬 후 브랜드 판매 비중 45.9%...현대차 격세지감 (아시아경제)

지난 1월 중국에서 판매된 자동차 중 로컬 브랜드 비중이 46%에 달했으며, 이는 '20년 38.8%, '21년 44%보다 높은 수치. 중국내 로컬 브랜드 경쟁력이 강화되고 한국계 자동차 업체들을 포함한 해외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중. <https://bit.ly/3BQ9fD0>

정부, 인니와 핵심광물·전기차 협력 확대한다...MOU 체결 (연합뉴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커지는 핵심 광물의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해 '한·인니 핵심광물 협력 MOU'를 맺음. 또 '전기차 협력 MOU'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협력 MOU'도 체결. 향후 전기차 생태계 조성 위한 협력 강화를 계획함. <https://bit.ly/36yaWRw>

Renault, VW, Stellantis, others potentially exposed to sanctions on Russia (Auto News)

미국과 동맹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행동에 대해 제재를 가하면 르노,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등 OEM이 영향 받을 것으로 예상됨. 특히 르노그룹은 러시아 주요브랜드 Lada의 지분 보유, 모스크바에 공장이 위치해 익스포저가 큼. <https://bit.ly/3JGRIrM>

Thailand approves tax breaks for EVs, 'high potential' foreigners (Reuters)

태국 정부는 EV 전환 촉진을 위해 약 6만 달러 이하의 EV는 최대 40%, 이상의 EV는 20%까지 수입관세를 인하하며, 수입 EV에 대한 소비세를 8%에서 2%로 낮춘다고 발표함. Toyota, Honda 등의 생산시설이 태국에 위치함. <https://reut.rs/3s7pX54>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